



추석 감사 예식

개 회	-----	인도자
찬 송	----- 590장 논밭에 오곡백과 -----	다같이
기 도	-----	말은이
말씀봉독	----- 히브리서 11:8-10, 13-16 -----	부모, 자녀들이 교독
말씀에 대한 묵상	-----	대표자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추석을 맞아 조상들이 추수를 하며 하늘에 감사했던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받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질 다윗왕조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일흔 다섯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120세 이상을 산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고대시대에서 자기가 거주하는 땅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등지는 거대한 부르심이 있기도 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익숙한 것은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때로 익숙한 것은 감사를 잊게 합니다. 작은 악에 타협하여 익숙해 지다보면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 명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몸 붙여 사는 땅에 나그네처럼 거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길손과 나그네 신세로 여겼습니다. 구약에서 '나그네'는 외국인과 달리 피난민이거나 이스라엘 이전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으로서 고향을 잃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는 보호 대상 시민이어서 완전한 시민이 되지 못하고 어느 정도 권리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스스로를 나그네로 여겼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2-16을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육신적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거할 온전한 고향을 찾아나선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둔 우리 모두는 것처럼 비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고향을 떠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고향을 찾아나설 수 있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할 더 좋은 곳은 바로 하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어느 정도의 권리만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나그네로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같은 약속을 물려받을 이들과 함께 장막에 살았습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로, 함께 평화를 누리며 노래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우리가 처한 현실도 이렇습니까? 형제자매가 어울려 사는 모습이 진실로 아름다우며 함께 평화를 누리는 자리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형제자매와 함께 어울려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물을 바치기 전에 화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같은 장막에 머물렀다고 이야기 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8절) 뒤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다(26)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세이고, 이삭이 자녀를 본 나이가 60세인 것으로 보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뒤 15년 정도는 할아버지와 함께 장막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에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즉 장막에 머무른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믿음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이들로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며 서로로 인해 하나님께 경배(히11:21)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어울리며 평화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선전하여 그 나라를 세워갈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나누기	-----	각 가족별로
찬 송	----- 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	다같이
기 도	-----	말은이
축복의 말씀 낭독	-----	다같이

민수기 6장 24 - 27절을 바꾸어 읽음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께서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을 지켜 주시며
 주님께서서 우리 가족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서 우리 가족들을 고이 보시어서 우리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추석

